

목어

‘선한 콩국수’도 망고...

구수한 필치의 이문구 단편소설 ‘장평리 썰레나무’(신간 소설집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들었다> 중 한편)를 읽으면 오늘날의 도시와 시골 인심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농사짓는 시골 형은 그 동안 써왔던 제 초제가 바로 고엽제 성분임을 알고나서 집에서 먹을 만큼의 고추만 농약도 비료도 안 주는 유기농으로 짓는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약삭빠른 동생부부가 이를 알고 “조금만 따 갈게요” 하고는 막 익기 시작하는 유기농 고추밭을 거덜내 버리고 만다. 형으로서야 그야말로 일년농사 몇몇이다. 그 뿐 아니라, 동생은 형태더러 콩농사 좀 많이 지어 나누어 달란다. 그놈의 미국산 유전자 변형콩 때문에 ‘선한 콩국수’도 ‘뜨끈한 피비지 찌개’ 하나 망고 못 먹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위치게 먹구, 달걀은 또 위치게 먹으며, 우유는 위치게 먹을겨. 사료라구 생긴 건 죄다 수입품으로 만드는데...” 시골과 도시 할 것 없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요즘의 형편을 보여주는 형제간 대화다.

요즘의 남 들어간 게나 북어, 머리 속에 돌병은 조기도 따지고 보면 그랩수 높이자 는 작은 피에서 나왔다. 황산이 든 식용유며 비료 넣어 키운 콩나물 등 요즘의 유해 불량식품은 차라리 독을 먹는 것이라 보아야 옳다.

‘신토불이’라는 오랜 구호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역사 이래 대접받고 있는 국산 농축수산물이지만 그것 또한 믿을 것이 못된다. 불신사회 가운데 먹을거리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가장 심각한 불신사회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려 하기보다 ‘장평리...’ 형제처럼 ‘나만은 안전한’ 방법만을 찾으려 한다.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고 재벌을 굴복시키는 거대한 ‘세 합’, 시민운동도 그런 건 해왔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유해불량식품에 독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삶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김정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정부 주권수호 차원 달라이 라마 방한 비자발급 해야”

준비족 국민서명운동 계획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가 돌연 연기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우다웨이 주한 중국 대사에게 최근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밝히고 나선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이른바 ‘신사대의교’라는 비판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이미 예정돼 있는 외교일정을 중국의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라며,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방한준비위는 19일 서울 연경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타종교 지도자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괄하는 범국민 조직으로 개편, 정부가 방한을 불허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방한허용’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이경진 외교부상 부 장관은 “불교신자는 물론 기

독교 신자까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원하고 있는 등 국민 다수의 희망을 저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중국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은 “11월은 시기가 좋지 않다. 국익을 고려해 달라이라마 방한 시기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달라이라마 방한 예정일을 전후해 주중지 총리가 방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지역협력(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중국과 굵직한 외교 일정 등이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방한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티엔 바우젠 부대사를 방한준비위에 보내 달라이 라마의 방한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에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9일 중로 연경관에서 공식출발식을 갖고 11월 16일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이 유독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외교관계를 무시한 강경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해 온 ‘저자세’ 외교의 과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방한준비위는 “중국 측의 발언이 주권을 침해하는 무례한 일장표명”이라며 공개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중국대사관의 거부로 실패)하려 한 데 이어, 18일 정부측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시대·골목 외교라는 비난과 국민의 신뢰를 무시하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와 중국 측의 압력의 형태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번 한국 방문은 순수 민간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내한 일정도 강연 등 종교·학술 행사로만 짜여져 있다. 정부가 이런 ‘제한적인’ 방문조차 허용하

지 않는다면 ‘사대·골목 외교’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11월 방한 허용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방한 날짜에 압박해 비자발급을 불허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자명하다.

단순한 경제논리를 앞세워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막는 것은 ‘평화와 인권’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마블 파동과 ‘남 꽃게’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입국을 연기하거나 끝내 불허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될 것임을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주인황 씨 네팔 불교동호회서 강연 ‘티베트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달라이 라마 정치인 아닌 종교지도자”



네팔불교인동호회는 16일 티베트 인권·독립회의와 공동으로 동국대 주인황 강사를 초청하여 조계사 교육관 지하대강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티베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주씨는 “티베트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은 잘못이며, 달라이라마는 정치적 인물이라기보다 종교적 인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다.

중국인 티베트가 원래부터 중국에 속했다고 하나 7세기 전반에 티베트와 당이 독립국으로서 전쟁한 결과로 맺은 평화조약의 조건으로 당나라의 공주가 티베트 왕에게 시집가기도 했다. 또 티베트가 몽고족의 지배국과 정치적 관계를 맺은 것은 13세기의 일이다. 그러므로 티베트가 원래부터 중국에 속했다는 중국 측의 말은 역사에 불과하다.

현재 국가로서의 중국과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중국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만일 우리가 고려할 때 윈 니라이 조공을 바친 사실이 있다고 해서 현재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가지, 아무리 역사를 따지고 세계법의 관계를 따를 것이라고 해도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독립을 원한다면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 티베트 독립 티베트무장독립단체 캄파 지도자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걸으며 교황에 버금가는 불교지도자이다. 또한 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 지금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어 종교 지도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한글세대 위한 한글 전시 제창한다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시 읽기(6)



김형중 명성여고 교장사 문학박사

되어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멀어진 지 오래 되었다. “죽은 문자로는 결코 살아있는 사상이나 문학을 만들 수 없다”는 중국 신문화운동의 선구자 호적(胡適: 1891~1962)선생의 선언처럼 우리가 선시의 전통적인 틀과 관념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거기에 안주하다가는 우리의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감정과 느낌을 시작으로 묘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창조적 세계를 시작으로 펼쳐본 것이 선시이다. 어려운 문자인 한문의 한계성과 제약성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신선하고 활발한, 자유롭고 개성있는 상상의 세계를 쉽게 표현할 수 없

는 것이다. 한글세대에게 문자와 말이 일치하는 우리 글인 한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식의 선시 창작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시의 형식과 격률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한시 형태의 선시는 문학 창작을 속박하는 골재가 될 뿐이다.

한문을 타국지언(他國之言)으로 보고 국문가사에찬론을 제창했던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은 “우리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영부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설화하였다. 그는 불교사상에 심취하여 한글로 된 소설(구운몽)에서 불교의 용어를 거침없이 구사하였다.

전거(典據)나 고사 따위들이 필요 없어지고 어려운 시율이나 격식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없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과 오매불망 추구해왔던 정신세계를 자유롭게 묘사하여 깨달음의 경지와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한글을 통해 창작된 깨달음의 노래인 선시가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붓다의 선언적 명제가 그렇듯이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생동하는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선시의 표현 수단이 천 년이 지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한 시 형태의 선시는 이미 도서관의 고서록 속에 장식된 골동품이 되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과감히 구각을 벗어 던지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새로운 형태의 선시 즉, 한글로 쓰고 읽는 선시를 전개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글세대에게 선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선사가 선시를 읊은 본래의 뜻을 알아서 되살리는 길임을 확신한다. 관념의 묵수성과 전통에 대한 맹목성은 자신의 병을 감추고 치료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선시에 대한 그 동안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용기를 갖고 선탈(禪脫)한 스님이 광덕(光德) 스님이다. 그분의 파격적인 한글 열반송은 불자들은 물론 젊은 학생,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당선이 남긴 유지가 감응되고 계시던 바가 크지 않았던가. 광덕 스님의 열반송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깊은 불소식이 겹쳐서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물형상을 떨쳤으니 금정산이 담담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www.buddhanews.com.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계사신용협동조합>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개월 여 지났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중단의 원로대덕스님들과 조합원 여러분에게 안내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으나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드려야 함이 도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건이 중단적인 사안이기에도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자료를 배포한 상태이나 중회의 진행이 여의치 않아 전 중도와 조합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보고드림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사자들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인 송석윤과 조택동은 신협 이사장에 의해 고소되어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조사나 언론 등에서 100억원대의 횡령 규모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나 이는 송석윤과 조택동 등에 의해서 임의로 임출금 되었던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로 현재까지 신협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약 48억원대 입니다.

사고 조사와 수습과정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신협 이사장에 의해 적발되고 형사 고소되어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현재 신협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국가 기관에서 선임한 경영관리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신협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24일부터 2001년 2월 23일까지 조합의 모든 채무 지급이 정지되며 조합 전 임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더불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예금자들의 예치금은 법에 의해서 보호될 것입니다.

금융 기관의 사고로 고객들의 예금지급이 정지되면 재산실사 및 조사후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본 조합에서 2000년 9월 20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재산 실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지급에 대한 조사가 10월 20일경 마무리된 후, 늦어도 11월24일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조계사 신협 예금주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자들에게 대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 까지 이루어진 검찰의 조사 결과가 신협 이사장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 이상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듯 하여 매우 유감이며, 좀 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기에, 지금은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나 본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금주들에 대한 조속한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합원 여러분과 모든 중도들께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기 2544년 9월 22일

조계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합장